

AFC 포럼

제10회 일본·중국·한국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국사 속의 '감정'——일본·중국·한국」

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공동주최: 도호쿠학원대학

2026년8월26일(수) 9:00~12:30

2026년8월27일(목) 9:00~12:30

장소: 도호쿠학원대학 이쓰쓰바시캠퍼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참가 무료

취 지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한중일 '국사' 연구자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지(知)의 플랫폼을 구축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종종 혼란에 빠뜨려온 역사인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부터 대화를 이어온 '국사들의 대화'는 이번이 제10회이자 10주년을 맞는다.

이번 대화에서는 한중일 국사에서 '감정'을 주제로 다룬다. 사람들의 감정은 분명히 역사를 움직이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역사인식 역시 감정이라는 요소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일은 이미 역사를 둘러싼 국민 감정 차원의 충돌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세계화의 진전이나 인터넷 미디어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정' 그 자체를 대화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의 사건은 한중일의 국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또한 애초에 한중일 국민은 서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어왔을까?

한편 '감정'은 흔히 '이성'과 대비되지만, 이러한 인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이의 언행, 혹은 이의 제기를 감정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과 이성을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감정'이라는 주제 설정은 2023년 제8회 국사들의 대화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의 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화에서는 역사인식이 각 사회에서 기억이나 학교교육,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역사 연구와는 큰 격차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주제였음에도 한중일 자국사 연구자들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제10회 국사들의 대화의 목표는 한중일 자국사 연구자들이 상대국의 '감정'을 알아가는 동시에 자국의 '감정'도 알아가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를 더욱 심화하여 역사인식 문제에 맞서는 데 큰 힌트를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프로그램

2026년 8월 26일(수)

제1세션 【기조강연】

사회: 김경태(金罔泰 KIM Kyongtae 전남대학교)

9 : 00 【개회취지】

류지에(劉傑 LIU Jie 와세다대학)

【기조강연】 「감정·역사 및 아이덴티티

—동북아시아의 역사서술에서 국족(國族) 편견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거자오광(葛兆光 GE Zhaoguang 푸단대학)

본 강연에서는 동북아시아(중국·일본·한국)에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사건 및 역사 저작을 사례로 삼아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서로 다른 국족적 감정이 역사서술을 어떻게 좌우하며, 그 결과 역사서술에 어떤 편향이 생겨왔는가. 둘째, 역사 속의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성적 역사서술 속에 적절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셋째, 국경을 넘어 역사서술의 시야를 넓히고, '귀속감' 혹은 '정체성'이라 부를 수 있는 감정적 색채를 완화함으로써, 역사 속 '이강아계(爾疆我界, 역사적으로 형성된 배타적인 경계 의식)'가 초래해 온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포럼의 취지】

시오데 히로유키(塩出浩之 SHIODE Hiroyuki 교토대학)

【기조강연】 「義憤의 感情 레짐(regime) - 茶山 丁若鏞의 '義殺論」

김호(金澮 KIM Ho 서울대학교)

18세기 조선 왕조를 통치하게 된 정조 임금은 '모든 인간은 밝은 도덕성[明德]'을 지니고 있다는 주자학의 가르침 하에, <萬人の 君子化>를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전에는 양반/사족들에게 요구되었던 '明明德의 修身'은 가능한 모든 인민들에게 허용되었고, 삶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모두가 군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누구나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를 실천한다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군자의 가능성을 현실태로 전환할 수 있었다. 不義에 맞서거나 이에 분노하는 '의로운 행동-자주 폭력을 동반하는'-은 정조의 감정 통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다. 25년의 치세 동안 정조가 남긴 천 여건이 넘는 살인 사건 관련 '審理의 기록[審理錄]'은 정조의 감정 통치를 잘 보여주는 사상사의 재료이다. 이뿐 아니라 정조의 <심리록>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비평서[欽欽新書]는 18세기~19세기 한국의 심성사(心性史), 즉 망탈리테(mentalité)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10 : 30 휴식(30분)

제2세션 【발표 「전쟁과 감정」】

사회: 남기정(南基正 NAM Kijeong 서울대학교)

11 : 00 【발표1】 「군사폭력과 감정의 통제」

나카무라 에리(中村江里 NAKAMURA Eri 조치대학)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타이완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내외에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도 후유증을 남겼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폭력의 주체가 된 일본군을, 감정사 연구자 바버라 로젠와인(Barbara Rosenwein)이 개념화한 '감정공동체(emotional community)'로 다시 파악하여, 병사들의 감정이 어떻게 통제되었으며 그들이 공유한 감정 표현의 규범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논한다.

또한 일본군 병사들이 전장에서 폭력에 가담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감정 마비나 '적'과의 감정적 거리는 중요하다. 감정을 무디게 만듦으로써 비인간적인 잔학 행위가 가능해진 병사들은 복원(復員) 후 전후 일본 사회를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점을 포함하여 본 보고에서는 감정 통제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발표2】 「전쟁의 감정과 국가의 자기 재구성: 한중일 인정투쟁 비교연구」

오승희(吳承熺 OH Seunghee 국립외교원)

한·중·일의 역사적 갈등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전시 고통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속되며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인정투쟁이다. 본 연구는 호네토키의 인정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각국이 전쟁의 감정적 유산을 어떻게 현재의 국가적 자기 재구성 기획으로 전환하는지를 고찰한다. 각국은 서로 다른 감정 변환의 패턴을 보인다. 일본은 전사 가해에 대한 죄책감과 패전의 수치를 피해자 서사로 대체함으로써 봉인하며, 억압된 트라우마는 역사 수정주의와 '강한 일본'에 대한 열망으로 재부상한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굴욕을 탈식민적 자기 확립으로 전환하고,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획득한 인정을 통해 집단적 존엄을 회복한다. 중국은 '백년 굴욕'을 중화문명의 부흥과 중국몽으로 승화시키며,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을 통해 인정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대안적 세계 질서를 제안하는 문명 주체로 스스로를 재정립한다. 이 경쟁하는 자기 기획들은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인정 정치의 지형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화해가 역사적 사실의 해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각국이 타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인정을 확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역설을 이 지역의 미완의 역사적 청산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발표3】 「고난, 저항과 초월: 항일전쟁 기억의 세 가지 서사와 그에 대한 성찰」

탕샤오빙(唐小兵 TANG Xiaobing 화동사범대학)

본 강연은 주로 새 세기 이후 출간된 회고록과 구술사를 핵심 자료로 삼아, 고난에 대한 개인화된 서사, 일본 침략에 맞선 문화적 지향의 저항 서사, 그리고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적 성찰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항전(抗戰)의 역사 서사가 취하는 세 가지 유형을 재고찰한다. 개인의 생애 이야기와 삶의 경험이라는 시각을 통하여, 중국의 지식인, 학생, 민중이 항전으로 빚어진 집단적 경험과 민족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직접 체험하고 목도하며 성찰했는지를 밝힌다. 나아가 개인과 국가, 역사와 기억, 경험과 이성, 민족주의와 인도주의 등 다층적 시각에서 이들 회고록과 구술사가 담아낸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026년 8월 27일(목)

제3세션 【발표 「상호 이미지」】

사회: 정순일(鄭淳一 CHONG Soonil 고려대학교)

9 : 00 【발표4】 근대 일본의 대중국 감정—'문명/야만' '청결/불결'이라는 프레임

가나야마 야스유키(金山泰志 KANAYAMA Yasuyuki 요코하마시립대학)

본 보고는 근대 일본의 대중국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문명/야만’, ‘청결/불결’이라는 이항대립의 틀에서 검토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대중국 인식은 부정적 평가가 90%를 넘으며, SNS에서는 배외적 언설이 일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감정을 역사적으로 상대화하기 위해, 지식인이나 국가 정책 차원의 중국관 연구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민중의 더욱 직접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정’에 주목한다. 분석①에서는 메이지부터 쇼와 전전기까지의 주요 소년 잡지(『소국민(小國民)』, 『소년세계(少年世界)』, 『일본소년(日本少年)』, 『소년구락부(少年俱樂部)』)를 사료로 삼아, 전쟁·외교 국면에 따라 적의와 멸시가 증폭되는 한편 공자와 맹자 등 고전 세계의 중국 위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공존하는 양의성을 통시적으로 제시한다. 소년 잡지가 오락인 동시에 감정 교육의 매체로서, 아이들에게 공유 가능한 ‘최대공약수’의 감정 구조를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분석②에서는 생활문화로서 중국 요리의 수용을 다룬다. ‘불결’이라는 평가가 미각이나 위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중국인이나 난킨마치(南京町) 등 중국적 공간에 대한 선입견과 결합하여 재생산된 과정을 논한다. 나아가 19세기 후반 위생 사상의 침투가 ‘청결=문명’이라는 등식을 강화하고, 일본의 자기 규정과 타자화를 뒷받침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감정사의 시각이 현대 한중일 관계를 더욱 냉정하고 다성적으로 논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며, 그 생성과정을 가시화해서 제시하려 한다.

【발표5】 「현대 한국의 중국 인식: 역사기관과 국정감사, 정치의 파동」

손성욱(孫成旭 SON Sungwook 창원대학교)

한국의 중국 감정은 단일한 기원을 갖지 않는다. 전근대 조공 질서 속 중화 우위의 경험, 근대 일본 식민 지배가 남긴 위계 기억, 냉전기 이념 적대감이 그 밑바탕을 이룬다. 오늘의 감정은 그러나 이 역사적 형성 과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대외 정세의 변화와 국내 정치의 재편이 반복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역사적으로 누적된 감정을 다시 불러내어 새로운 형태로 빚어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 감정과 일본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정 국면에서 시소처럼 맞물리는 경향을 보인다. 반일 감정이 고조될 때 중국이 역사적 연대의 대상으로 호출되기도 하고, 반중 정서가 강화될 때 일본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조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동은 우연이라기보다, 한국 사회가 전근대의 중국 우위와 근대의 일본 우위라는 서로 다른 위계 경험을 동시에 안고 극복해 온 과정이 감정 구조 속에 각인된 결과일 수 있다.

본고는 한국의 대중(對中) 감정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정치의 파동 속에서 어떻게 증폭·조정되는가에 주목한다. 분석의 중심에 놓는 것은 2006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이 연구·수집·교육을 본령으로 한다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처음부터 연구기관이자 현안 대응 기관으로 설계되었다. 21세기 초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동시에 폭발하던 위기의 정치학이 이 기관을 낳았다. 그 결과 재단은 외교·정책·여론의 접점에 놓였고, 정치의 파동에 유달리 민감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본고는 재단을 둘러싼 국정감사 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국정감사는 정치가 역사기관을 호출하는 방식이자, 역사 감정이 정치 언어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어떤 이슈가 어떤 언어로 표출되는지, 대중(對中) 의제와 대일(對日) 의제의 비중이 정권과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곡, 굴욕,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 어휘가 어떤 정치적 조건에서 전면화되는지를 추적한다. 나아가 그 언어가 재단의 연구 의제와 사업 우선순위를 거쳐 대중의 역사 인식에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가 역사기관에 끼치는 영향과 그 문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0 : 30 휴식(30분)

제4세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11:00 사회: 평하오(彭浩 PENG Hao 오사카공립대학), 무라 가즈아키(村和明 MURA Kazuaki 도쿄대학)

- 【지정토론1】 박삼헌(朴三憲 PARK Sam hun 건국대학교)
- 【지정토론2】 미야마 준이치(宮間純一 MIYAMA Junichi 주오대학)
- 【지정토론3】 왕지저우(王繼洲 WANG Jizhou 시난정법대학)
- 【지정토론4】 평마오(馮淼 Feng Miao 사회과학원)

【자유토론】

【총괄】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MITANI Hiroshi 도쿄대학 명예교수)

12 : 30 폐회

발표자 소개



거자오광(葛兆光) / GE Zhaoguang

1950년생. 베이징대학교 학부(1982) 및 대학원(1984) 졸업. 칭화대학교 교수(1992), 푸단대학교 문사연구원 초대 원장(2007) 역임. 현재 푸단대학교 문사연구원 및 역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와 중국의 사상·문화·종교사. 주요 저작으로 『중국사상사』 (전 2권, 푸단대학출판사, 1998·2001 / 영문판·한글판), 『택자중국: 중국에 관한 역사적 담론의 재구축』 (중화서국, 2011 / 영문판·한글판·일문판·불문판), 『무엇이 중국인가: 강역, 종족, 문화와 역사』 (홍콩 옥스퍼드 대학출판사, 2014 / 일문판·영문판·불문판), 『역사적 중국의 안과 밖』 (홍콩 중문대학출판사, 2017 / 한글판·독문판) 등. 제1회 중국도서상(1988), 제1회 장강독서상(2000), 제26회 일본 아시아·태평양 대상(2014), 제3회 한국 파주 북어워드(2014), 제8회 홍콩도서상(2015), 제3회 사면독창상(2015), 제7회 오육장 인문사회과학 일등상(2017) 등 수상. 2009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제1회 프린스턴 글로벌 스칼라(Princeton Global Scholar)로 선정. 2022년 홍콩교육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 취득.



김호(金澔) / KIM Ho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지성사, 사회문화사. 주로 조선 왕조의 통치론과 제도적 실천의 성쇠를 탐구 중. 주요 저작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2000)을 비롯해 『조선왕실의 의료문화』 (2017), 『조선의 지방 醫局: 공공의 실천장』 (2025) 등 의료사회사 연구와, 죄와 벌을 둘러싼 조선의 일상세계를 연구한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2013)와 『100년 전 살인사건: 檢案을 통해 본 조선의 일상사』 (2018) 그리고 『정조의 법치』 (2020) 등.



나카무라 에리(中村江里) / NAKAMURA Eri

1982년 출생. 조치대학 문학부 사학과 졸업 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사회학).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특임강사,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PD,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인간사회과학연구과 준교수를 거쳐 2024년 4월부터 조치대학 문학부 사학과 준교수.

전공은 일본 근현대사, 군대와 정신의료의 사회사, 젠더사.

주요 저서로 『전쟁과 트라우마』(요시카와코분칸, 2018년), 『전쟁과 문화적 트라우마』(공저, 니혼호론샤, 2023년), "Male Hysteria in Modern Japan: Trauma, Masculinity, and Military Psychiatry during the Asia-Pacific War" in Traumatic Pasts in Asia, edited by Mark S. Micale and Hans Pols (New York: Berghahn Books, 2021), 「'사회적 고통'으로서의 전쟁 트라우마」(『BRAIN and NERVE』 75권 9호, 2023년) 등.



오승희(吳承熿) / OH Seunghee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석사.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치학 박사.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전공 분야는 일본 외교정책, 중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주요 저작으로 『동아시아 인정투쟁: 패전국 일본, 분단국 중국, 식민지 한국의 국교정상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From the Only A-Bombed Country to Global Peace Advocate: Japan's Diplomatic Identity Change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2-2 (Scopus, 2024.8)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공저, 2019)



탕샤오빙(唐小兵) / TANG Xiaobing

후난성 출신. 역사학계 교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후난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계 신문학 전공에서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화둥사범대학교 역사학계에서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직은 화둥사범대학교 교수·박사과정 지도교수. 하버드대학 옌칭학사 방문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APP '칸리상(看理想)'의 오디오 강의 「회고록 속의 20세기 중국」 강사를 맡고 있다. 2014년 『동방역사평론』 선정 「중국 걸출 청년 역사학자」, 화둥사범대학교 제1회 청년 교사 육성 공헌상 등을 수상하였다.

전공 분야는 만청부터 민국 초기의 신문·잡지사, 현대 중국의 지식인 및 사상문화사, 좌익 문화와 중국 혁명, 회고록·구술사와 20세기 중국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 『틈새를 걷다: 지식인과 20세기 중국』(홍콩중문대학출판사, 2025) 등이 있으며, 『중공당사연구』, 『신문여전파연구』, 『사림』, 『독서』, 『21세기』(홍콩), 『사상』(타이베이) 등에 특집 논문 및 학술 서평을 포함한 30편 이상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가네야마 야스유키(金山泰志) / KANAYAMA Yasuyuki

2007년 요코하마시립대학 국제문화학부 졸업. 2009년 니혼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 전공 박사전기과정 수료. 2013년 니혼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 전공 박사후기과정 수료. 박사(문학). 현 요코하마시립대학 국제교양학부 준교수(副教授).

전공 분야는 일본 근대사, 미디어사. 주요 저작으로 『메이지기 일본의 민중

중국관』(후요쇼보, 2014년), 『근대 일본의 대중국 감정』(주코신쇼, 2025년), 「근대 일본의 중국 요리 수용과 대중국 감정」(『일본사연구』 719호, 2022년 7월)



손성욱(孫成旭) / SON Sungwook

2005년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2009년 북경대학 역사학계 석사. 2015년 북경대학 역사학계 박사. 역사학 박사. 현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전공 분야는 중국근현대사, 한중관계사. 주요 저작으로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푸른역사, 2020) 베이징에 온 서양인, 조선과 마주치다(동북아역사재단, 2022) <“盛极又衰”의 圓明園——以朝鮮使臣的圓明園經驗爲中心>, 《清史研究》 2015年第1期. <清鮮關係中清朝禮制的張力——以康熙年間清朝冊封朝鮮王世弟爲中心>, 《文史哲》 2018年第5期. <‘外交’의 龜裂과 摸索: 1860~70年代 淸·朝關係>, (韓國) 《歷史學報》 240, 2018年. <20世紀 ‘宗藩關係’論의 形成과 變容>, (韓國) 《東洋史學研究》 164, 2023年.



박삼헌(朴三憲) / PARK Sam hun

1995년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사. 2000년 고베대학 대학원 일본사 전공 석사. 2003년 고베대학 대학원 일본사회문화사 전공 박사과정 수료. 문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일어교육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관장, 상허교양대학 학부장.
전공 분야는 일본 근대사. 주요 저작으로 『천황 그리고 국민과 신민 사이』, RHK, 2016. A New Modern History of East Asia(Co-authored),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2017,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 (공저), 고문연(高文研), 2025



미야마 준이치(宮間純一) / MIYAMA Junichi

2005년 주오대학 문학부 사학과 일본사학 전공 졸업. 2007년 주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학 전공 박사전기과정 수료. 2012년 주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사학 전공 박사후기과정 수료. 박사(사학). 현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 전공 분야는 일본근대사, 정치사·지역사. 주요 저작으로 『메이지유신이라는 이야기—정부가 만드는 「국사」와 지역의 「기억」—』 (주오코론신사, 2025년) 『보신내란기의 사회—「좌막(佐幕)」과 「근왕(勤王)」 사이에서—』 (시분카쿠출판, 2015년), 『국장의 성립—메이지 국가와 「공신」의 죽음—』 (벤세이출판, 2015년)



왕지저우(王繼洲) / WANG Jizhou

2011년 취푸사범대학 행단학원 일본어 전공 학사과정 수료. 2014년 시난정법대학 법률석사학원 석사. 2015년 히로시마수도대학 법학연구과 석사. 2021년 와세다대학 사회과학연구과 박사. 현재 시난정법대학 정치·공공관리학원 전임강사, 국제관계교육연구실 부주임, 충칭도시거버넌스·발전연구원 부연구원.
전공 분야는 일본 정치사상사, 중일관계. 주요 저작으로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의 정치외교론」 (『일본역사』 제917호, 2024년 10월), 「아카마쓰 가쓰마로(赤松克麿)의 정치외교론」 (『정치경제사학』 제663호, 2024년 3월), 「나키야마 마사미치와 "동아협동체" — 지식인과 정치의 거리」 (『아시아문명』 제3집, 상하이인민출판사, 2025년).



펑마오(馮淼) / Feng Miao

2003년 중국인민대학 역사학과에서 학사 취득. 2013년 뉴욕대학교에서 철학박사 취득. 현재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부연구원. 전공 분야는 중국 근현대사, 혁명 및 전쟁의 사회문화사. 주요 저작으로 논문 「『독서생활(讀書生活)』과 1930년대 상하이의 도시 혁명 문화의 발전」 (『문학평론(文學評論)』 2019년 제4기), 「트랜스내셔널한 시야에서 본 중국 농촌 문제 - 태평양국제학회를 중심으로」 (『개방시대(開放時代)』 2024년 제4기), 단저 『근대 중국 대중교육의 흥기 1927-1937』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23년) 등이 있다.